

한국의 결혼식에 대해서

한국의 결혼식은 여자와 남자의 결합의 의미 이외에 2개의 가족의 결합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조금 형식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도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많이 듭니다. 그럼 한국의 결혼식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결혼하기 전, 여자와 남자는 보통 3개월정도 동안, 결혼 준비를 합니다. 남자측은 집을 사거나 빌리거나 합니다. 여자측은 가구나 전기상품을 삽니다. 예를들면 TV나 침대 등을 삽니다. 그리고 결혼식 1개월 전에 초대권을 보냅니다. 친척이나 친구나 선생님에게 보냅니다.

결혼식 하루전에는 특수한 행사가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의 집에 “함”이라는 물건을 가지고 갑니다. 그 안에는 점장이가 가르쳐 준 여자와 남자의 운세와 보석등이 들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의 전통적인 옷인 한복이 들어 있습니다. 남자와 그의 친구가 여자의 집에 들어올 때, 여자의 가족은 그들에게 돈을 줍니다. 그 돈으로 그들은 행사가 끝난 후, 놀러갑니다. 술을 먹거나 노래방에 가거나 합니다.

결혼식은 구미식과 한국식이 함께 행해집니다. 처음은 구미식으로 하고 나서 한국식으로 합니다.

결혼식이 끝나면 식당에서 피로연을 합니다. 보통은 남자와 여자의 피로연은 따로 합니다만, 요즘은 함께 하는 일도 있습니다.

결혼식에 온 친척과 친구는 남자와 여자의 접수대에 돈을 냅니다. 그런 이유로 결혼식에 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